

90년대의 종축개량 방향

박 신 호

(사무국장, 농학박사)

90년대가 갖는 의미

1980년대는 세계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축산업계에도 실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연대였다.

우선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1980년 초에는 광주민주운동, 제5공화국의 탄생, 6.29선언에 따른 민주화와 과격한 육구분출로 인한 사회의 혼란, 1980년대의 마지막날에 있는 전임대통령의 국회중언 등 실로 엄청난 격동기를 지나 이제 90년대를 맞게 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동구권에서의 공산주의의 몰락을 들수가 있다. 폴랜드의 자유노조운동이 전개되다가 싶었는데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확산되면서 동서독의 장벽이 무너지고 불가리아를 24년간이나 독재하여 온 차우셔스쿠가 그를 지지하던 군대에 의해 처형당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으니 실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비록 통일은 아니되었으나 장벽이 무너진 독일의 베를린에서 레나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들으면서 1980년대를 보내고 이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9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 의미는 실로 대단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제부터 10년이 지나면 서기 2천년인 21세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를 위한 준비기간이 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군사적 대립,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서로가 보다 잘 살기위한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수출을 더하여야 함과 아울러 수입의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될것이어서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축산의 여건은 더욱 어려워 질것이 틀림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어느정도 규제를 받고 있는 모든 품목을 1997년까지는 모두 풀어야 하니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도 많고 또 단단한 각으로 90년대를 맞이하지 않고서는 21세기에 선진국대열에서 영원히 밀려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90년대는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해야할 여러가지 분야 중에서 종축개량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인데 그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한우개량의 방향

한우개량에 있어서 몇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금년 안에 한우개량단지가 100개소가 된다는 사실과 한우의 인공수정 보급율이 점점 높아간다는 사실이다. 또한 몇가지 개선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검정과 후대검정 체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인공수정 보급율이 높다는 사실은 특별한 관심을 갖게한다. 지난해만 해도 한우정액이 근 1백10만개가 각 지역에 공급되었다. 이른바 육용우에 대한 인공수정 보급율은 대개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공수정 보급율이 높다는 것은 훌륭한 종모우를 잘 선발하기만 하면 계획교배에 의해서 개량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수한 종모우를 선발하는데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한우의 개량목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설정되어 있는 목표중에 앞으로 제정될 육류등급이 가미가 되어야 할 것이나 육류등급에는 수율과 육질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서 우선 엘리트카우(우수빈우)가 선발되어야 하고 이들 빈우에다 계획교배시켜 태어난 수소의 당대검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는 환경조건이 동일한 여건 아래에서 비교검토되는 것이 가장 좋다. 현재는 각도 종축장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당대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당대검정에서 이루어진 수소는 역시 정확한 후대검정을 통해서 선발하여야 하며 이들 종모우에서 생산된 정액은 번식우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계획교배로 후대를 생산케 하는데 일본의 4방식의 활용과 아울러 젖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형심사(Linear Classification) 제도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계획교배가 바람직스럽다.

한우개량단지를 비롯하여 번식농가에서는 개량되는 후대가 계속하여 번식에 이용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개량된 소가 먼저 비육되어 도살되어 버리면 그만큼 개량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한우의 장점인 고기의 맛이 최대한으로 반영된 종모우의 선발에 특히 역점을 두지 않으면 쇠고기 완전수입개방에 한우의 사육체계는 무너질런지도 모른다.

젖소개량의 방향

젖소개량에 있어서 특수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젖소가 모두 혈통등록을 하여 혈통관리를 할 수 있고 체형의 심사를 받아 개량할 부위를 파악하고 모두다 산유능력검정을 받아 능력이 파악되면 우선 우수종빈우가 선발이 되어 우수종모우의 생산체계가 이루어지고 후보종모우의 후대검정이 이루어지게 되니 우리나라 풍토에 알맞는 종모우를 우리 손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며 계획교배를 실시할 수 있게 되니 자연히 후대는 유전적으로 개량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젖소의 인공수정 보급율은 거의 100%라고 하는 사실이 앞에서 언급한 등록, 심사, 검정이 제대로만 되면 세계 어느 낙농선진국에 못지 않은 개량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혈통등록이 불과

1만여두에 지나지 않으니 가야할 길이 너무나도 멀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량방향은 어떻게 하면 등록두수를 늘리고 심사두수를 늘리고 검정두수를 늘리느냐 하는 것이다.

입회검정두수를 늘리는 것은 여러가지 예산수립상 그리 쉬운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때까지는 낙농가에서 자가검정을 하여 개체별로 잘 기록을 하여 둘 것이다. 그러나 혈통등록이나 심사는 낙농가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전사육두수를 금년중에 모두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협회의 제한된 인원이 일일이 농가를 방문하여 할 수는 없다. 낙우회, 축협, 낙협, 개량단지내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공동으로 혈통을 등록하는 운동이 금년에 일어났으면 한다.

유전적으로 개량된 젖소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축산진흥대회나 가축품평회의 성격이 바뀌어야 하겠다. 특히 일선에서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개량사들이 개량활동에 앞장 서는 것이 앞으로 개량사업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젖소개량에 있어서도 개량목표의 설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유지방 기준에서 유단백질이나 총고형분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홀스타인종주국인 화란에서는 거의 모든 소가 혈통등록을 하고 산유능력검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으면 한다.

종돈개량의 방향

돼지분야에 있어서는 능력검정 체계가 다른 종축 분야에 비하여 크게 앞서가고 있고 종모돈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경매제도가 정착되어 제2종돈 능력검정소를 신축중에 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종돈능력검정소에 검정 의뢰하는 것이 자발적인 것이 점차 약화된다는 안타까운 것이다. 모든 종축개량은 어떻게 하면 우수한 숫놈을 많이 선발하느냐 하는데 달려있는데 돼지분야에 있어서도 이것이 예외는 아니다.

보다 우수한 종모돈의 선발을 위하여는 당대검정 뿐만 아니라 산자수, 육질 등을 평가하는 검정방법으로의 발전이 요망스럽다고 하겠다. 서로 다른나라 환경에서 육성된 종돈간에서 태어난 종모돈의 검정보다는 오히려 계통별 종모돈의 검정이 더 바람직스러울지도 모르겠다. 역시 보다 많은 두수가 등록하고 능력검정을 받아 보다 우수한 종모돈의 선발과 어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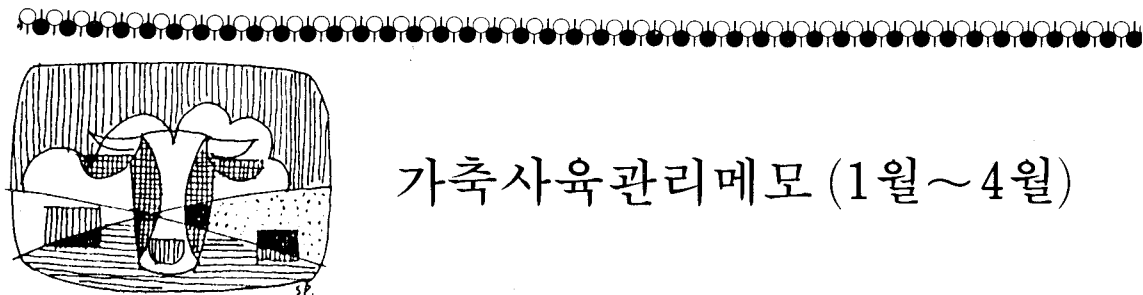
러 어떤 품종간의 교배가 가장 경제적이고 육질이 좋은돈육을 생산하는가 하는 방향의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무리 하면서

한우나 젓소, 돼지의 개량방법은 다 잘 알려진 것이다. 다만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지원하여 등록을 하고 심사를 받고 능력을 검정하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양축가 스스로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개량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이 90년대 첫해부터 나타나야 할 것이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개량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종축(한우, 젓소, 돼지)의 개량없이 우리는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

앞으로 10년간의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들은 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는 더 배우고 아는바를 실천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가축사육관리메모 (1월~4월)

- 1월과 2월은 1년중 가장 추운 계절이다. 보온을 한다는 구실로 환기가 제대로 안되면 호흡기계통의 질병이 많이 생기게 되니 환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 축사내부에 습기가 많으면 건강과 보온에 좋지않다 항상 바닥이 건조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축사내부에 오래 머물르게 됨으로 운동이 부족하게 쉽다. 아울러 여러가지 비타민의 결핍증이 나타나기 쉬움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 싸이레이지를 한꺼번에 많이 꺼내 놓으면 열게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 초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는 서릿발에 떠서 목초의 뿌리가 얼어죽지 않도록 밟아주거나 진압에 신경을 써야 한다.
- 축사에서 나온 구비는 퇴비와 섞어 잘 발효되도록하여 폐기물처리에도 걸리지 않고 토양을 살리는데도 한몫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3월이 지나면서 봄이 완연해진다. 발정이 많은 계절이 되는 고로 미리미리 계획교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태어나는 새끼는 속히 혈통등록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축사내에 오래 있었음으로 피부염, 구충제의 투여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각종 사료작물의 파종준비도 서둘러야 한다.